

부산 동구 종친회 제31차 정기총회 개최

부산동구 종친회는 지난 10월 15일 토요일 오후 6시 30분에 동구수정동에 있는 장원 숯불구이 식당에서 일족 및 회원 50여명 참석하여 제31차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는 총무 권영오의 사회로 개회선언에 이어 상례 행사를 마치고 인사소개로 부산종친회 권길삼 회장을 비롯한 각구 종친회 회장 등을 소개하였다.

이어서 권영렬 동구 종친회장은 부산종친회장을 비롯한 각구 각단체에서 참석하신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말과 아울러 명문 거족의 후예로서 타 문중의 모범이 되고 실천하여 훌륭한 선조의 후예답게 행동하고 실천하여 모범적인 가문이

되자고 당부하였다.

이어서 부산종친회장은 제31차 정기총회를 축하하고 역대회장님들의 노력으로 오늘 동구종친회가 유지되어 왔음을 강조하고 임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회원여러분들이 더욱 분발하여 많은 회원을 확보하여 더욱 발전하는 동구 종친회가 될 것을 희망하며 회원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많은 행복이 있기를 기원하였다.

감사보고와 결산보고는 월례시체에서 참석하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으로 대체하고 오는 11월 8일 능동 시조 추향에 많은 인원이 참석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이날 회의를 끝내었다.

〈권재혁 사무국장〉

권혁세 금융감독원장 은행 순익구조 분석지시



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은행들이 올해 사상 최대 해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비판 여론이 거세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장은 1차 분석결과 순익규모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은행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사회공헌 확대를 비롯 다양한 순익 활용방안을 마련하도록 개별 은행을 독려할 방침이다.

5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권 원장은 지난 4일 임원회의에서 국내은행들의 순익구조를 분석해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박재범 기자, 하나투데이 2011. 10. 6 인용〉

권호영씨 재향경우회중앙회 부회장에 취임



다. 권 부회장은 경찰 공무원으로

권호영씨(71세, 경북 영양, 별장공과 34년)가 지난 6월 대한민국제향경우회는 전국에 275개의 지회를 두고 있는 법정단체로서 120만 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는 안보단체이기도 하다. 〈편〉

등정



△ 권도엽 국토해양부장관이 13일 인천 송도에서 열린 U시티 월드포럼 행사에서 방한 중인 후안 클로스 유엔 해비타트 사무총장과 면담을 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 정부부는 9일 연합사 부사령관에 권오성(육사 34기, 56, 주필공과 35세) 합참 합동작전본부장을 내정했다.



△ 안양과학대학(이사장 권재혁)은 패션·뷰티 스타리스트과 교수와 학생 250여명이 24일 중국 항저우에서 열린 2011 중국 국제실크 박람회 및 여장전시회 패션쇼에 참가했다.



△ 9일 열린 제9회 하이서울을 준비한 권영규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서울광장에서 시작해 정계전, 한강, 서울숲으로 이어지는 이번 코스를 "친환경 생태도시" 서울의 면모를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최적의 코스라고 말했다.



△ 11일 권오곤(58, 국재유교전법재판소부부장)이 영산법률문화재단(이사장 윤관 전 대법원장) 제7회 영산법률문화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 지난 달 22일 권혁인 광해관리공단 이사장이 강원 정선군 하이원리조트에서 1박2일 일정으로 제3회 광해방지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朋友兒覽識)라 하였으며, 아울러 '太極'은 '至極'의 이치이고 많은 理의 본이니 유형만물이 화생하는 근원이라고 재삼 강조하고 있으니, 즉 주자가 말한 바 '萬物之根底, 品匯之樞紐'('太極圖說解')이다. (다음호에 계속)

권옥순 샌프란시스코한인회장



장으로 당선되어 크게 활동하고 있다.

권 회장은 북가주한국학교협의회장, 글로벌어린이재단 SF회장, EB무궁화라이온스클럽 회장, SF민주평화통일회의 9, 10, 11, 13, 14가 2011년 샌프란시스코 지역 한인회장으로 당선되어 크게 활동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한인회 제공〉

권춘연 양 정법대학 입학



燕, 18세, 중국 길림시 북양공과 36세)가 지난 8월 말 중국 政法大學에 입학하였다. 政法大學은 중국의

최고 명문대이고 법학계에서 권위 있는 학교이며 법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의 꿈의 대상이다. 권춘연 양이 우수한 성적으로 정법대학에 입학하여 길림시 조선족중학교에 경사가 나고 우리 권씨가문에 빛을 내었다. 춘연 양은 장래소망으로 법학을 잘 배워서 공정한 사회와 약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겠다는 말에 많은 사람들의 찬사를 받았다.

〈권중희 길림종친회장〉

권혁인 광해관리공단이사장



다. 30년 공직생활 중 상당기간을 이 분야에서 일했다.

삼척군수와 강원도 기획관리실장, 청와대 인사관리 비서관을 지내면서 전문성을 쌓았다. 특히 "눈앞이 아닌 2단계, 3단계 그 이후를 내다봐야 한다"는 지론을 토대로 조직원의 인사를 직접 챙긴다.

무엇보다 구성원의 업무역량을 감안, 전문적이고 정밀함을 요구하는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재를 보내야 한다는 게 권 이사장의 방침이

다. 그는 취임하자마자 전 직원에게 직장생활 제1의 가치로 '청렴'을 주문했다.

평소 직원들에게 '양진의 사지(四政)'란 중국의 고사를 인용하면서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내가 알고, 내가 알고 있다. 아무도 모르겠지 하고 유혹에 넘어가선 안된다"는 점을 주지시키며 윤리강령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권 이사장은 강릉고와 성균관대 행정학과, 서울대 행정대학원을 졸업했다. 강원대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1977년 행정고시 19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삼척군수와 강원도 기획관리실장, 대통령비서실 비서관, 행정자치부 지방행정본부장, 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편〉

한국계 플라세 첫 佛상원의원 당선

플라세 씨(한국명 권오복)는 1968년 3월 12일 서울에서 태어나 보육원에서 7세 때 1975년 7월 23일 프랑스 노르망디 지역의 변호사가

내 기사가 실린 뒤 한국대사를 만나고 한식당에 가보며 조금씩 한국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씨는 캉 대학에서 경제 및 은행법을 전공하고 금융 분야에서 잠시 일했다.

1993년 라로셀 지역의 미셸 크레포 의원의 비서로 일하면서 정계에 진출했다.

씨는 "코리아 파운데이션 초청으로 10월 27일 임시 귀국해 국회 및 녹색당 관련단체 등을 만나고 11월 2일 출국했다.

〈이종훈 동아일보 파리특파원 2011. 9. 28 인용〉

道山學叢書

十七世紀의 政治社會의 狀況과 晚悔·炭翁의 歷史的 位相

17세기 정치사회적 상황
만화 탄용 역사적 위상
李佑成 (성균관대 명예교수)

〈지난호에 이어〉

論道山之學

1. 仁政德治의 '王道'를 주장함

II. 이기론

권득기와 권시 부자는 우주론에 있어 기본적으로 程朱를 근본으로 하고 선조인 權傳과 退溪선생의 동방 성리학의 관점을 계승하여 '理'가 主宰가 되는 우주본체론을 주장하였다.

1. '理'가 본체가 되는 우주론

권씨 부자의 우주론은 理·氣결합이나 '理'가 본체가 되는 것이다. 우선 그들은 주자의 "理라는 것은 형이상학적인 道이고 생물의 근본이며, 氣라는 것은 형이하학적인 器로서 생물의 도구이다. (『朱文公文集』卷50, 『答黃道夫』)"라는 관점에 근거하여, 理와 氣로써 모든

우주 세계를 "形上"과 "形下"의 2개의 논리차원의 관계로 나누었다. 理는 氣의 생성과 존재를 결정하는 근거이고, 우주만물을 구성하는 본체로서, 즉 이른바 "生物之本"이고, 氣는 즉 전지만물을 구성하는 물질 재료로서 즉 이른바 "生物之具"이다. 바로 권득기가 말한 것은 다음과 같다.

이것은 우주간의 모든 현상은 모두 반드시 理·氣의 관계로써 설명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有是理然後有是氣...無是理無是氣, 則天不得以爲天, 地不得以爲地, 人不得以爲人(同上)"인 것이다. 理·氣가 비록 서로 의지하고 분리되지 않고 있으나, 本末의 구분은 있다. 形而上的 理는 '本'으로 主宰作用을 일으키고, 形而下的 氣는 '末'로서 理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래서 그는 결론지어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 다음 형이상의 理와 형이하의

氣는 또한 본·말의 관계만이 아니라 理가 體가 되고 氣가 用이 되는 體·用관계를 나타내기도 한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먼저 體가 있고 나서 후에 用이 있다는 것으로 "此理之大體先具, 此氣之功用乃見(同上)"인 것이다. 이렇게 理는 실제성의 범주일뿐 아니라, 또한 동시에 능동적 작용을 하는 것이다. 바로 권득기가 말하는 바와 같은 것이다. 이같이 해서 논리적으로 '理先氣後'說과 아울러 理가 우주세계의 본원이라는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다. 따라서 이른바 "理與氣者, 實天地人之具也...未有事物之始, 所謂理與氣者於何依附? 而及其著也, 先有理平, 抑先有氣乎?"라는 것은 모두 무엇이 우주의 본질인가라는 문제에 회답하였다.

2. 周敦頤「太極圖說」에 대한 해설

권씨 부자의 우주론에서 '理'

'太極' '道'는 동일한 차원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형이상의 정신본체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들은 다른 각도에서 형이상의 정신본체에 대한 논술을 하여 우주만물의 생성과 최초본질에 대해 본체론의 근거를 제공하였다.

그들은 주자와 마찬가지로 '理'를 '太極'이라 부르기도 한다. 예를 들면, "太極이라는 것은 理이다."("晚悔集·僞疑 卷3 '近思錄·論道體'"), "태극은 理이다."("炭翁集·卷11 朋友兒覽識")가 그것이며, 또 주자의 "理生氣"의 관점에 근거하여 주돈이의 '태극도설'에 대하여 자기의 해설을 하였다.

우선 먼저 그들은 '태극'은 곧 無形無象 無聲無臭의 '無極', 곧 이른바 "理之無形無方體"("晚悔集·僞疑 卷3 '近思錄·論道體'")로 그것이 본체가 되어서 無形無象의 음양오행과 우주간의 萬事萬物을 낳는다고 여겼다. 이는 본체가 추상적인 것이고 무형적인 것이며 초시공적인 것으로 또한 바로 형이상의 본체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바로 주자가 말했던 "無極而太極, 只是說無形而有理"('朱子語類'卷97)이니, 이로 인해서 권득기가 권시는 '태극'을 설명하여 "太極者, 理也...無極而太極, 無極無方體而實有極至之理也"("晚悔集·論道體") "太極, 理也...理即無形, 而有形之主也."('炭翁集

부정공파총회

- 회 장 권성달
- 부 회 장 권영역, 권오순, 권영수, 권기웅, 권순형, 권해진, 권상흠, 권병윤, 권효준, 권오서, 권영인, 권영식
- 감 사 권오진, 권용한, 권도임, 권오문
- 총 무 권오기

미나리 국민공동체 회원가입안내

"미나리 국민 공동체"란?
미래의 나라를 리드할 인재를 찾아내서 국민의 마음과 뜻을 한 곳에 모아 소망을 이루게 하는 일을 함께 하는 사람들의 모임체

- ① 홈페이지 'www.minalee.kr'에서
- ② '미나리 국민공동체' 회원가입 후
- ③ 나도 한마디(가입인사) 인사말을 남겨주시요

가입문의 (H,P)011-272-4241 FAX 1515-011-272-4241 홈페이지 www.minalee.kr

대한민국제향경우회 중앙회 부회장 미나리 국민공동체 대표 권호영